

「탐라기행(耽羅紀行)」으로 보는 시바 료타로의 한국인식

전창환*
Jonhan11@gmail.com

<目次>

- | | |
|-------------------|------------|
| 1. 서론 | 2.3 부정적 견해 |
| 2. 본론 | 2.4 긍정적 견해 |
| 2.1 기행의 동기와 목적 | 3. 결론 |
| 2.2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견해 | |

主題語: 시바 료타로(Ryotaro Shiba), 시바사관(A historical view of SHIBA), 「耽羅紀行」(「The journey of TAMRA」), 「韓のくに紀行」(「The journey of KARANOKUNI」), 「街道を行く」(「Going through a highroad」)

1. 서론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본명 후쿠다 테이이치 <福田定一>, 1923.8.7~1996.2.12, 이하, 시바로 칭함)의 「탐라기행」¹⁾은 「주간 아사히」에 1986년 3월 21일호를 시작으로 9월19일호까지 연재된 것을 엮은 기행문으로, 연작 「가도를 가다. (街道をゆく) 전43권」의 28번째 작품으로 1986년 11월에 아사히신문사에서 발간되었다.

시바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비합리, 비논리, 신비주의, 전근대적인 발상, 흑백의 극단적 사상과 이론 등과 이에 의거한 제국주의적 발상 등을 부정하는 ‘합리주의’로 대변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시바사관 (司馬史觀)’²⁾의 특징이자 그의 대중성의 기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비판적인 견해로는, 시대의 지도자의 관점에 편중된 나머지 대중과 민중의 통시적인 관점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고, 명치기의 전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소화기의 전쟁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소위, ‘밝은 명치’와 ‘어두운 소화’라는 모순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

* 큐슈정보대학 경영정보학과 준교수

1) 司馬遼太郎、2007年、朝日新聞社、街道をゆく28 『耽羅紀行』

2) ‘시바사관’은 시바 자신이 언급한 바 없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해 만들어 졌다.

한 서구식 합리주의에서 발아한 제국주의, 나치즘, 공산주의 및 과도한 자본주의와 연관된 그의 합리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히, 진보혁신파(나카무라 마사노리<中村政則>, 사타카 마코토<佐高信>, 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 등)로 부터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 정당화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보수파들로 부터는 ‘대동아전쟁을 부정하는 자학적 사관’이라는 양극의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에 대한 시각은 일관성이 있고 소설 이외의 형태로도 표출되어 하나의 사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현대 일본지성의 대표자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철저한 고증에 의한 현실감 넘치는 작품으로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대표작 상위 20위의 발행부수 만도 1억 2천만부에 달하고 있다.

시바는 조선과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작품과 강연 등을 통해서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 많은 작품 중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카라노쿠니 기행(韓のくに紀行)」과 「탐라기행」 두 작품 밖에 없다. 한편 한국에도 시바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극단적인 평가와 함께 연구, 분석은 활발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시바의 역사관을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탐라기행」 속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그의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론

2.1 기행의 동기와 목적

(1) ^{たじまもり}田道間守については『古事記』にも『日本書紀』にも出ている。『日本書紀』の「」に、天皇がおそらく侍臣だったかと思われる田道間守に「常世の国へ行って非時の香菓を求めて来よ」と言いつけたというのである。

— 中略 —

田道間守と“橘”という伝説は奈良朝時代にはよく知られていたはなしらしく、

「橘は常世の国の木」

ということで、貴族の屋敷にはかならず植えられる木とされていた。この風は平安時代にもかすかに遣って、御所のの前庭に、かならず植えられた。(左近の桜、右近の橘)。

さて田道間守は『書紀』によると、「万里の浪を踏」んで絶域にいったという。そこは神仙の秘境でもあったという。

－ 朝鮮の濟州島だっ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説がむかしあって、べつに実証性はないものの、私などはトキジクノカグノコノミといえ
ばあの楕円形の濟州島のかたちがうかぶというふうに、自分勝手の童話のなかにこの島をひき入れ
ていた。

－ 中略 －

ただし、朝鮮本土では柑橘類は育たない。ただひとつ、その南端の海上にうかんでいる濟州島だ
けは、適地なのである。ここは、解放後、日本から蜜柑を移植して、全島蜜柑畑になっており、韓
国本土の蜜柑の需要を一島でまか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から、古代にふるい形の柑橘類が自生して
いたとしても、おかしくない。 <p.9, 12 ~ p.11, 10>

타지마모리³⁾가 천황의 명을 받고 굴나무를 찾아 간 곳이 제주도 일 것이라는 것은 시바
의 견해이며 이외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시바 스스로도 제주도설에 대한 실증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탐라기행의 계기로 삼은 것은 실증주의자인 시바가
제시하는 탐라기행 동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 「高麗史」によると、大意以下のような耽羅神話がかかげられている。

はじめ、人がいなかった。あるとき、穴から三神人がすつくと出てきた。穴というのは、漢拏山
の北麓（いまの済州市）にある毛興穴とよばれる穴のことである。三神人の名は、年上が良乙那、
つぎが高乙那、三番目が夫乙那である。

三人は荒地に狩猟をし、皮の衣を着、肉をたべてくらしていた。

あるとき紫泥で封蔵された木の箱が東海岸に流れついたので、これをひらくと、紫色の衣をきて
紅い帯をしめた一人の使者が出てきた。また木の箱の中に石の箱が入っていて、その中から三人青
衣の^{おとめ}処女が出てきた。さらには、仔馬と仔牛、それに五穀の種子も入っていた。

そこで、使者が、いう。

「私は日本の国吏である。わが王は、この三人のむすめをお生みなされた。西海（日本からみて
西）の岳に神の子が、三人降^{くだ}ってまさに国をひらこうとしているのをきき、それなら妻がなくては
なるまいと思い、家来に命じ、三人のむすめをお送りなされたのです。よろしく^{はい}配^なを作し、もって
大業をなされよ」

と口上し、おわると雲に乗って去った。三人は、年齢順にそれぞれ妻をめとり、泉（この島には

3) 신라에서 건너 온 아메노히보코(アメノヒボコ)의 증손이라고도 함.

湧水が多い) の^{あま}甘く、土の肥えたところにゆくべく、矢を射て土を^{ほく}卜した。

<p.21, 7 ~ p. 22, 4>

실증적 자료를 중시하는 시바가, 『고려사』에 일본국의 세 공주가 탐라국의 세 왕비가 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며 제주기행의 동기가 된 것은 당연한 이치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탐라국 건국신화의 이와 관련된 부분에는 이설이 많으며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시바가 일본으로 해석한 제주 동북부의 섬 - 벽랑국(碧浪國)은 일본이 아니라 소랑도(小狼島)라는 지적과 함께 ‘일본’이라는 국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탐라국 건국신화 훨씬 이후인 670년이라는 점 등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⁴⁾

(3) 私が濟州島の海女の村をたずねたかった動機の一つは『延喜式』だった。

『延喜式』とは、日本の平安初期の延喜五年(九〇五)に編纂された律令の施行細則である。

— 中略 —

その卷第十四に、国内の諸地方からのがさだめられている。

— 中略 —

意外にも、

「耽羅鰻六斤」

という五文字が出ているのである。これもなんのことだかわからない。

まさかはるかに耽羅から輸入するというものではあるまい。

常識的に解すれば、いまの大坂湾か伊勢湾あたりに、耽羅からたえず海女がきていて、大きなあわびを獲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

想像しうることは、それ以外にない。

ともかくも千数百年前のことである。いこしえも耽羅の海女は日本にやってくるには海仕事をし、そのうちの何割かは日本人になって、私どもの祖先の一部になってしまったのにちがいない。

耽羅にくると心が落ち着くのは、そういうせいでもあるのかと思ったりするのである。

<p.304, 9 ~ p.305, 9>

위의 『연희식』에서 조정에 진상된 제주전복 6근에 대한 해석에 있어, 시바는 실증적인 관점이 아니라 고대이후로 빈번했던 제주지역과의 인적교류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해녀가 일본을 오갔다는 사실은 일제강점하인 1930년대에 작은 목선을 타고

4) 강진문화원 학술논문, 2005년 6월 5일, 이형석 박사, 『벽랑국 이야기』

대마도를 오고 갔다는 노해녀의 증언⁵⁾ 뿐 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어업기술지도 등의 민간교류가 있었고 이런 교류를 통하여 제주 해녀의 뛰어난 잠수기술을 전수받은 사실은 일본쪽의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한다.⁶⁾

이상의 세 가지 - 타지마모리의 이상향의 굴나무, 『고려사』의 탐라신화 일본공주관련 설, 『연희식』의 제주전복 6근 진상설 - 가 탐라기행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음을 시바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제주도와 일본과의 강한 유착관계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이는 탐라기행 15년 이전의 작품인 『카라노쿠니 기행』의 동기와의 일치한다.

따라서 시바의 탐라기행은 고대이후의 한일관계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자하는 의도적인 답사여행이었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제일한국인 학자들과의 교류, 해박한 한국 및 제주관련 지식, 폭넓은 역사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철저히 준비된 기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에 대한 한국내의 여러가지 반박이나 이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관련된 자료와 관련 가능성 만으로도 역사소설가인 시바로서는 충분한 여행의 동기와 목적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2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견해

(1) 韓国・朝鮮人は、ごく一般的にいて、激越なほどに誇りが高い。こういう国を合併（一九一〇~四五年）するなど、この一点だけでもいかに愚行だったかがわかる。

まず堂々たる数千年の独立国からその独立性を奪って、民族の誇りという神経網に手を突っ込んでしまったことである。

ついで、日本の商品経済をもちこんで、ゆるやかに自給自足のくらしをつづけていた農村経済を破壊したことである。多くのひとたちが田地を離れ、自分自身の労働力を商品にすべく日本に流亡せざるをえなかった。このみじめさは、いかなる民族といえどもたえがたい。

さらにはこの民族を軽蔑し、あるいは警察行政的に警戒したことである。ばかにされた上に虐犯者あつかいにされてはたまらない。

ついで、さまざまな“皇民運動”も、固有の言語と姓という誇りの根元をうばうことによって、癒しがたい屈辱をあたえた。

じつをいうと、私の中にはこのようなことをわざわざ書くことに物憂さをおぼえる感情がある。

5) 司馬遼太郎, 2007年, 『耽羅紀行』, 앞의 책, p. 297

6) 司馬遼太郎, 위의 책, p. 280

1950년대에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의 어업협동조합에서 제주해녀를 초대하여 잠수기술지도 등을 받았다고 함.

私自信は、韓国・朝鮮が、固有の氣品ある文化を連続させてきたという点で、世界でも数少ない民族のひとつだと思ってきたし、この民族への尊敬心をうしなつたことがない。

だから、自国が近代史のなかで三十六年間やってきたことを、一市民である私が一身に背負っていちいち韓国・朝鮮人に頭をさげて歩くなどはかなわない。そういうことなら、この国の土を踏んだり、あるいはこの民族のひとつとつきあつたりするなどはしない。そのへんが、私は図々しくできているのである。 <p.111, 4 ~ p.112, 3>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부내각에 대하여 시바는 비판으로 일관하였고 탐라기행 이전 1971년에 써어진 작품인 『카라노쿠니기행』에도 단편적으로나마 비슷한 견해를 펴 력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에 대하여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무모함을 지적 하기도 하였다.7)

그런데 일본의 조선강점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은,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음모 등의 과정 이 간과된 아쉬움은 있으나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솔직한 마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탐라기행』이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마치 제주도 안내서와도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お伽話にむごい話が多いが、歴史はそれ以上にむごい。

とくにこの半世紀の歴史ほど苛烈だったのは、それ以前の世界史にもない。

一九二二年生まれの玄文叔氏にとって、その来日早々が世界恐慌だったのではないか。やがて日本は軍国主義化することによって、世界じゅうのどの国よりも早くそのパニックからぬけだした。軍国主義は国内的な変質を遂げてはじめて可能なもので、このため狂言的な民族主義化を必要とした。ただの人間であつてはならず、だれもが日本人であることの自己崇拜を持たねばならなかつた。このため朝鮮民族に対する強引な“皇民化”がすすめられた。つづいて大戦。

<p.139, 13 ~ p.140, 1>

시바는 일본적인 문화가 한창 꽃피웠던 에도시대를 더없이 흠모하였고 이의 연장선상인 근대화의 초기과정 즉, 명치시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시대인 소화기의 군국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시바의 역사관에 대하여 시대를 칼질하듯이 쉽게 나눌 수 없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8)

7) 司馬遼太郎, 2008年, 朝日新聞社, 街道をゆく2 『韓のくに紀行』, p.105, p221

8) 中塚明, 2009年, 高文研, 『司馬遼太郎の歴史観』, pp.26-46

위에서 일본의 군국주의화 과정을 ‘광언적 민족주의화’로 요약하였는데, 이것은 전근대적인 발상과 극단적인 흑백론을 부정하고 제국주의적 발상을 부정하는 시바의 역사관과 일치하고 있다. 즉, 그가 직접 경험한 2차대전의 참상에 대한 강한 비판인식이 이전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3 부정적 견해

(1) 李朝にあつては、中国と同様、科挙の試験でもって官僚を採用した。

そのことはよかつたが、その試験は朱子学をもつて唯一の学派とし、それ以外の思想に拠つてはいけない(明・清の科挙も同じ)とされた。

このことは、朝鮮史に凄惨な災禍をもたらした。朱子学(大きくいえば宋学)は、考証や訓詁といった実証性よりも、大義と名分を重んじ、それについての異同を飽くなくたたかわせる学派なのである。

おもえば、士大夫やそれをめざす有為な知識人あるいは読書生が、ほとんど不毛というほかない神学論争を五百年もやりつづけたというのは世界史的な奇観といえる。

中国人や朝鮮人ほどに、精神の活力に富んだ民族が、世界が近代に入ってゆくもっとも大切な五世紀を、この屁理屈のような学問のために消耗したというのは、くやまれてならない。

<p.15, 3 ~ 12>

(2) 李朝の官僚史は、朋党の対立とその歴史だった。論ぜられるところは大義名分であり、他党を非難するのもまた大義名分論なのである。

<p.15, 16 ~ 17>

(1), (2)에서 시바가 조선의 유학 또는 정치이념으로써의 유교적 폐해의 한 예로써 조선의 과거제도를 언급한 것은 탐라기행이 처음이며, 과거제도는 봉당화의 요인이 되어 소모적인 당파싸움으로 이어졌고, 대의명분을 유교적 폐해의 핵심요소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바의 인식은 『카라노쿠니기행』 이전부터 일관된 주장인데, 그가 일반인과는 다른 역사소설가로서 방대하고 해박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의 한계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李氏朝鮮は、儒学のなかでもっともイデオロギー性のつよい朱子学を官学とし、他の思想

をゆるさなかった。その思想的抑圧は凄惨なもので、朱子学以外の思想をもつ士人に対しては容赦なく弾圧した。このため朝鮮は近代への準備が決定的に遅れ、その弱点を、近代化早々日本が衝いて国そのものに乗っか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私など、若いころ、朝鮮ほどの思想文化をもつ文明国が、なぜ近代化への思想をもたなかったのだろうと思っていたが、それは無知で、堂々と存在し、思想家も多く出た。しかしそれらの芽は、朱子学というギロチンの刃でもしくは箒で摘みとられた。それらのことを知ったのは、すべて姜在彦氏の半生の研究のおかげである。

<p.29, 1 ~ 8>

(4) 私など、朝鮮の心を思うときに、液体ガスのようにつねにたたえられた怒りという感情を感じず。まず、三十余年の日本による支配は、この怒りをたっぷり液化させた。それ以外の要因においても、精神が何ことかふれて高圧を感じずるたびに、ガスはいい加減な通気孔から気化してしまうことなく、液化するのにながらいい。

<p.33, 8 ~ 11>

조선에도 뛰어난 사상과 사상가가 엄연히 존재했었음에도 정치이념화, 획일화된 유교중심주의의 탄압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은 폐쇄적이었던 에도시대에도 사상의 다양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이후의 논리로 까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시바의 조선유학에 대한 비판의 근거에는 훌륭한 문화국가인 조선이 왜, 무슨 이유로 근대에 실패하였는가? 라는 강한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런 마음이 위의 (4)에서“조선의 마음을 생각할 때 마다, 액체가스와 같이 항상 고여진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일종의 안타까운 애정일 수도 있었다고 사료된다.

(5) 조선でいう「士」とは、日本の武士の士とはちがったものである。日本では士とは武の人であり、江戸期では士分階級の人をさすが、朝鮮の場合、『史記』に出てくる「士」に通うもので、まず武人ではない。さらには階級をも意味しない。ソンビとは、きわだった精神のもちぬしのことをいう。李氏朝鮮は、朱子学に則った学問をし、徳をもつひとをソンビといった。ふつう官に仕えていないために多くは貧乏だった。しばしば劇画化されて、飢えるほどの極貧にあっても痩せがまんをしている人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

— 中略 —

ともかくも、朝鮮精神史をごく感覚的に見て、ごく一部ながら病的なほどに自分の節操をまもり、骨まで透けるほどに自己を清らかにしてゆきたいという、他国には見られにくい精神の流れがある。金石範氏もそうだが、玄文叔氏、姜在彦氏もそうで、日本人や中国人の大方からみれば、ま

ことに生き辛く生きている。

<p.34, 3 ~ 15>

(6) 韓国・朝鮮人にはすぐれた人が多いのに、本国の人々もふくめて日本文化の理解者は少ない。なにか、ばかばかしい気がするのだろうか。

<p.41, 4 ~ 5>

시바는 ‘士’를 선비로 칭하면서 일본의 무사인 ‘侍’와 구별하였다. 조선이 그토록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을 했던 반 발가벗은 일본의 무사를 시바는 ‘凛々しさ’, ‘늠름함, 씩씩함’ 함으로 표현하면서 자긍심을 표하기도 했다.⁹⁾ 반면 조선의 선비는 정신문화에 편중하여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논리중시의 집단으로 변질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6)에서는 정신문화를 중시하는 조선과 한국의 문화인들이 정작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정신문화에 대해 무감각한 것을 꼬집고 있다.¹⁰⁾

(7) 観徳亭が市民生活に深い役割を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なさそうである。たとえ李氏朝鮮といえども、初期のころはべつとして、その後、練武のためにこの建物が大いに機能を果たした、ということとはなかったにちがいない。

ただ、「亭」としての役割はある。

亭というのはいきなもので、建物としての実用性は、小気味いいほどにない。

壁も扉もないから、住むわけにもゆかず、オフィスとして使えるわけでもない。建物ながら彫刻のような役割をしていると思えばいい。

<p.88, 4 ~ 12>

(8) 観徳亭は、実用性はないながらも、都邑の中での風景に多少の芸術性を加えているだけではなく、もし濟州市でこの無用の建物がなければ、過去からの文化的連続性をもたないただの町になってしまうおそれがある。

<p.90, 2 ~ 4>

조선 정신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정자 - 제주의 관덕정 - 에 대한 시바의 시각은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문도 없고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산물로 평가하고 있다. 『카라노쿠니기행』에서는 드넓은 김해평야를 바라보면서 일본같은 먼 고급별장지로 개발되었으리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름답고 여유로운 자연풍경에서 현실성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실용주의적 측면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9) 司馬遼太郎, 2008년, 『韓のくに紀行』, 앞의 책, p.155

10) 1986년까지만 해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문화에 대한 연구성과 및 대학의 설치학과, 연구자 등도 질적으로 담보상태였다.

(9) 時代にして、中国は三千百年、朝鮮は約九百五十年これをやりつづけてきたのである。

その頭脳の中には、十分エラスムスになりえた者もいたろうし、ニュートンになりえた者もいたはずであったが、すべてが型どおりの盆栽の松にさせられてしまった。

李氏朝鮮の官僚申維翰は、通信史として、一七一九年に日本に使いした人で、われわれ後世の者に、すぐれた日本紀行『海遊録』（東洋文庫・姜在彦訳注）を遺してくれた。

— 中略 —

「日本には、科挙試によって人を採用する法がなく、官は大小にかかわらずみな世襲である。奇材俊物が世に出て自鳴することのできない所以である。民間人のなかで恨みを抱きながら世を去るもの、多くはこのたぐいである。」

とある。

申維翰には申しわけないが、もし日本に科挙の制度があったとしたら、江戸時代の多様さはなかったであろう。

江戸期は、形だけは朱子学が官学だったが、他の学問が弾圧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

江戸期は、キリシタン禁止のほかは、学問・思想は、高麗朝や李氏朝鮮とくらべてはるかに自由だった。

— 中略 —

江戸期におけるこれら人文科学的な、“百家”の“争鳴”がなければ、どうして明治期の新文化の導入はなしえなかつたにちがいない。

— 中略 —

李氏朝鮮は、党争と弾圧の歴史でもある。朱子学における正統と異なる思想をもった知識人の運命は、しばしば凄惨だった。もしかれらを自由に争鳴させておけば、その後の朝鮮思想史はよほど肥ったものになったにちがいない。

<p.93, 5 ~ p.96, 11 >

(9)에서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의 정신문화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폐쇄적이었던 에도시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제외한다면 활발하고 자유로운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의 인물들을 들고 있다.¹¹⁾

이씨조선의 역사를 당쟁과 탄압의 역사로 매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자는 적어도 조선 후기의 피폐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시바의 논지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10) 「兩班」

これこそ朝鮮を知るための手がかりの一つだといわれてきたが、私は本気で関心をもったことが

11) 司馬遼太郎, 2007年, 『耽羅紀行』, 앞의 책, pp. 94-95

ない。

「ボクは両班の子なんだ」

ということばを、こどものころから何度もきいた。

わりあい数が多かったから、朝鮮人はみな両班だと思ふことにした。そういうように、概念や実態を朦朧とさせておくほうが、かえって正確なのではないか。 <p.95, 16 ~ p. 96, 4>

(11) 姜在彦氏も、少年のころ『詩経』を読んでいて、よその老人に軟弱だといって叱られたという。

いうまでもなく『詩経』は中国最古の詩集で、紀元前十世紀末から同六世紀初めまでの詩があつめられている。孔子が編集したともいわれ、中国では儒家の經典の一つ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それをもって軟弱だから読むな、という叱り方そのものに、儒教朝鮮の伝統を見ることができる。

<p.98, 14 ~ 17>

양반제도가 조선후기에는 매관, 매직 등으로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양반의 숫자가 70% 이상으로 비대해지면서 사농공상의 사회체제가 붕괴되어 실물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시바는 이러한 조선후기의 상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유학이 조선에서 유교로 정착한 것은 중국의 의도가 아니라 조선의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였다. 조선특유의 정치이념화 된 유교가 독자적으로 발전한 실증적인 예가 (11)에 소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바는 이러한 현상을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12) それほど、韓国・朝鮮人は誇り高い。誇りの発光源は自分自身にあるというよりも、その家系にある。(誤解をまねかぬためにひとこと添えねばならないが、これは一般論で、精神と思想の陶冶を経た多くのひとはべつである。)

出身地についても、自分の道を貴しとし、他の道はバカにする。

とくに古新羅の故地である慶尚道のひとたちは、誇り高く、自分たちには古人の風があり、誠実で質朴で、言葉を違えることなどはしない。そこへゆくと全羅道の人はゆだんならず、甘言を弄しながら肚の中ではべつのことを考えている、などという。ついでながら全羅道は新羅にほろぼされた百済の故地である。 <p.113, 2 ~ 9>

한국의 지역감정의 근원을 유교의 가부장적 가계문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근현대사에서 비민주화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3) 私が最初に韓国に行ったのは、この『街道をゆく』のことで、十数年前である(第2巻)。そのとき大阪から釜山まで乗った大韓航空機のスチュワーデスたちがそろって胃炎をわずらっているように不機嫌そうだった。

私の最初の韓国体験は、スチュワーデスの表情と態度だったといっている。

(私が日本人だからかな?)

— 中略 —

在日韓国人は本国文化の基準からみて礼儀正しくないそうである。また、おカネがあるからといって威張る人まである。 <p.115, 2 ~ 10>

(14) 玄文叔氏は、すでに鬱屈していた。

(母国のサービス業は、これでいいのか)

と、叫びたげに、いわば憂国の情をおさえかねているふぜいでもあった。

— 中略 —

しかし、他国人として無責任に見ていけば、シェークスピア劇を見ているようだった。西洋演劇の多くは自我の激突を中心に構成される。この点、韓国人が、みごとにアジア的な平板さから離れている。 <p.120, 15 ~ p.121, 14>

(13),(14)는 불친절하고 오만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탐라기행이 찍어진 1986년은 한국이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비로소 개발도상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5) 日本は、江戸期、土農工商にわかれていたといえ、ジャンケンのような関係であって土は貧しいかわりに誇りをもちたされ、商人は富んではいるものの、自治の義務以外、行政には参加できない。工である職人は一般に尊敬され、腕しだいでは、異様なほどの尊敬をうけることもあった。

しかし李氏朝鮮では、商人は不当なほどにいやしめられた。

むろんいまの韓国は工業水準の高さや商業の活発さにおいてはアジア有数の国である。いまは往年の商人蔑視などはみられないが、しかし憤慨したときはつい文化の古層が感情の水面をつきやぶってしまう。 <p.117, 14 ~ p.118, 4>

(16) 朝鮮儒教は、弊害も多く、たとえば社会を一価値でしめくくろうとするために、朝鮮社会

を停顿させた。しかしながら、千年以上も儒教によって耕しつづけてきた社会は、他の文化にない「夫老」といった徳を生むのである。 <p.130, 17 ~ p.131, 1>

(17) 儒教社会は、年齢で拘束される。尹學準氏の前掲の本によると、年が倍以上の相手に対して父親に事えるようにし、十歳上だと兄に事えるようにする。五歳上だと肩を並べていいが(友人としてつきあっていいが) ただし一步さがるようにして待遇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人中に入ると、相手の年齢を見て自分の礼をさまざまに変えねばならず、まことに気苦労なものなのである。 <p.132, 14 ~ 18>

(15)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던 조선시대와 비교하여 에도시대의 실리적 직업관을 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16)과 (17)에서 유교적 덕목인 장유유서의 영향에 의해서 아직도 존재하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우선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고 있는 점이고,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난해해 하고 있는 점이다.

문화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장단점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역사소설가로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18) 韓国人は碩学李退溪を誇りとしている。私もえらいと思っている。

しかし、五百年以上の朝鮮知識人の歴史に朱子学が及ぼした影響を冷静にみると、マイナスの要素のほうがつ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しまう。私は宋学(朱子学)の不毛な理屈っぽさがきらいだから、このことにはやや私情が混入しているかもしれない。

— 中略 —

儒教には、神はない、さらには迷信もない。

神にかわる至高のものとしては、聖人があるのみである。具体的には、古代の伝説的な聖天子とされる堯^{ぎょう}や舜^{しゆん}、人間の時代に入ってから、孔子が理想的人物とした周公、それに儒教の教祖である孔子そのひとをさす。

宋学、とくに朱子の思弁性のおもしろさは、孔子など聖人たちを、肉体をもつ歴史上の人物から昇華させて、哲学上の抽象的存在に高めた — もしくは気化させてしまったことである。

<p.170, 6 ~ p.171, 2>

(19) 朝鮮実学派の流れは、大河にはならなかった。が、魅力的な思想家が多かった。

— 中略 —

お札の鴻儒^{こうじゆ}(大学者)の思弁主義がはたして朝鮮のために役に立ったのか、それとも後世あらわ

れてくる右の系譜がもし公論になっていけば朝鮮の近代はべつな道をたどったのではないか、など
というようなさまざまな思いが、千ウオンのお札によって刺激されるのである。

<p.174, 15 ~ p.175, 10>

(20) この五百数十年の歴史は党争の歴史で、これを一層あげつなくいえば、たがいに誹謗しあ
いすきあれば相手を罪におとしめようという歴史だった。党争という面から朝鮮史を読めば心が
暗くなってしまう。

しかしこのことは決して朝鮮人論にはならない。

問題は、文章の巧拙で1人は天上のような暮らしが保証され、他の数百万が地にはいつくばる生
活を余儀なくされるという制度のほうにある。

というよりも、文章自慢たちの心理ということである。文章は数学ではないから、落とされた天
狗たちにとっては、自分の敗北を客観的にみとめてなっとくするということがない。むしろ、えら
ばれた者をそねむしかないのである。

日本史でただ一例だけ大官にのぼった道真の例において、すでにおそるべき現象があった。日本
史がもし科擧の制を採用していればどうなつたらうと慄然とせざるをえない。

<p.181, 1 ~ p.185, 11>

(21) 朝天にながされてきた元官僚の流罪人たちよりも、^{だぎのごんのそつ}太宰権帥の道真のほう
がめぐまれている。

そういう道真でさえ、死後、その霊は怨霊となり、祟るということで、世上に喧伝される。道真
は神になり、諸国の天満宮にまつられることになる。

それにくらべれば、朝天の諸霊は浮かばれまい。

<p.186, 8 ~ 11>

(18)(19)(20)에서, 조선의 유교에 대한 비판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21)에서는 다만 문장이 뛰어나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관리에 의해 기득권이 유지되는 조선의 과거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비슷한 예로 지금은 텐진(天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真)를 들고 있다. 일본내에는 스가와라를 모시고 있는 신사인 천만궁(天満宮)이 3,300여개가 넘을 정도인데, 사람이 신으로 추앙된 첫 예라고 한다. 스가와라 역시 문장이 뛰어나 문장박사의 칭호를 얻고 천황에 의해 정치에 발탁된 인물이나, 정치적 암투에 휩싸여 결국 귀양을 가게 되어 객사를 한 인물이다.¹²⁾

시바는 이 경우를 들어 일본에 과거제도가 없었음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2) 味酒安則・村田真理,2002年,太宰府天満宮文化研究所,『新菅家御伝』,pp. 37-45

다. 즉, 시바는 조선의 과거제도와 비교하여 일본의 폐쇄적 신분제도의 우월성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도시대의 폐쇄적인 문화가 일본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잉태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22) 李氏朝鮮において「士」とは、日本の武士ではなく、科擧に合格することによって官途につきうる官界予備階級（正規の兩班）のことをさすのである。中国でも「士」とは紀元前から政治に志をもつ者をさし、日本の武士に近いものではない。儒教国では、文官にくらべ兵は卑しいものとされていた。

江戸期の士は、儒教からみれば兵だった。（私は単純だから、儒教の士というようならうるさいものよりも、日本の士のほうがすきである。）

朝鮮における党争は官僚のあいだだけではなく、士をまきこんで闘われた。全土の支配階級を二分したり、四分五裂したりして、たがいに反目嫉視しあった。

<p.199, 11 ~ 18>

(23) 私も李瀼の説になびきたい。ただ、かれらとその敵をやっつけあう言論は強すぎる。朱子学の思弁性や論理から出ているために、言葉が刃のようにするどくなら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イデオロギーの弊害といえはしないか。

— そういう過去が、韓国・朝鮮人の激情や理屈っぽさに影響していないか。

と思ったが、口に出してはいわなかった。

<p.201, 14 ~ p. 202, 4>

지나친 관념주의가 이념논쟁으로 치달으면서 신분제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무사와 농공상(農工商)을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며, 이러한 이념적, 논쟁적인 조선의 특징이 현대의 한국인의 특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시바는 제일 한국인의 평가 및 한국인의 기질을 평가할 때마다 이를 지적하고 있다.

(24) ともかくもながい。

しかも、朱子学という一つのドグマ（独断的教条。あるいは教義）でつらぬかれた五百年なのである。（この間、日本は室町の貿易時代があり、応仁ノ乱があり、戦国時代があり、の天下統一があり、江戸時代があり、明治維新があり、日露戦争があった。）朝鮮は李氏朝鮮一種類があっただけである。

本来、社会は生き物で、経済によって変化してゆく。この生き物をドグマの鉄の桶に入れて鉄のふたをしておけるものではない。

が、李氏朝鮮はそれをやったのである。五百年不動という世界史的な大実験をやったのけたのだ

が、ふと考えると、いまドグマの鉄の桶で社会をキムチのように漬け込んでいる国は、たとえばソ連かもしれない。ソヴィエト体制下になってざっと七十年になるが、なお今後も教義で人間と社会を漬け込もうとするなら、ぜひ李氏朝鮮五百年史を研究する必要がある。（もともと、ソ連唯一の価値であるマルクス・レーニズムは科学技術という“実学”を包摂するし、回教圏もそういう。“実学”をタブーとはしなかった。それでも回教圏は、十三、四世紀以後、衰退の一途をたどった。この点、李氏朝鮮は頑固というほかない。）

<p.207, 17 ~ p. 208, 12>

(24)에서 조선 500년의 유교적 정치질서의 제반 문제를 실패한 구소련의 공산주의와 회교국가들의 중세이후의 쇠퇴상황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서구적 합리주의에서 탄생한 공산주의의 쇠락은 시바역사관의 근거인 합리주의에 최대의 모순 중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¹³⁾

즉, 사상과 제도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실행과 운용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많으며 하물며 정치와 역사에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조선의 유교도 고려의 귀족주의와 불교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도입, 실시되었으며 중기 이전 까지만 해도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자가 시바의 관점과 다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국가를 지향했던 조선의 정치가 정작 서민의 역량을 키우지 못 하였고 백성에 의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피폐한 채로 50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 실증적인 예가 임진왜란으로 들 수 있는데, 조선의 경제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일본에 뒤떨어지지 있었고 이를 간파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역사에서의 가정이란 무용지물이겠지만 만약 임진왜란 후에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과 아쉬움을 항상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5) 李氏朝鮮は、官僚たちが^{ドグマ}教条によって文明を故意に停滞させた。

— 中略 —

そのころ朝鮮には肩引きや動物にひかせる車さえなかったというのは、文明史的な驚異である。朝鮮人ほど思弁の能力の高い民族が、形而下的な面になると車ももたなかったというのは、要するに朱子学的な政治のせいではあるまいか。

— 中略 —

老子もひどいことをいったものである。人間がもっている知的な、あるいは即物的な好奇心とい

13) 中塚明, 2009年, 앞의 책, pp.186~190

うものを、これほど過小評価した思想もすくないのではあるまいか。 <p.210, 4 ~ p. 211, 15>

(26) ひるがえっておもうと、朝鮮は中国に隣接しているのである。さらには李氏朝鮮は中国をもって宗主国としてきたのである。

でありながら、中国の伝統的な産業技術からみずからを隔離してきたのは、その形而上的理由による。

ようやく一七八〇年代にいたって、朴趾源や朴齊家がその重要さを指摘しつつげざるをえなかったところに、李氏朝鮮史のふしぎさがある。

ドグマの悲劇であり、朱子学の惨禍でもある。 <p.217, 1 ~ 7>

시바는 조선의 관료들이 정치적 교의(도그마)에 의해 고의로 문명을 정체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중국의 전통적인 산업기술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조선의 실학에 대한 재평가 및 긍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로 정착하는 큰 흐름을 만들지 못 했다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27) 葬儀はまことに厳肅なものだが、ただ一つの点で、遺族の心理をやすがせない。

— 死者の靈魂は安らいでいるだろうか。

という点である。この点、儒教は返答してくれないのである。 <p.249, 15 ~ p. 250, 2>

(28) 朝鮮儒教は宋学の流れである。このため、鬼や神は健前として近づけることはしない。

しかし、いくら剛毅な儒教的な士大夫でもさびしいということはあったにちがいない。

儒教におけるそういうさびしさの面を、中国では道教がうずめる。韓国ではシャーマニズムがうずめるのである。

このため韓国における葬儀は兩建になってしまう。 <p.251, 4 ~ 8>

(29) しかし儒教という文明主義からみれば、シャーマニズムはなにやら田舎くさく、夷狄^{いてき}くさく、秘儀めかしく、また愚かしくもある。

このため、巫堂や神房たちは、正統権威である儒教の立場からむしろ蔑視された。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で神房の家系の人もいるのだが、ことさらにそれをいわないともいわれる。

<p.251, 15 ~ 18>

(27),(28),(29)에서 시바는, 조선의 유교가 종교적인 신을 근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갈망을 민간신앙에 일부 의존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민간신앙의 주도자들

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지위에 있었기에 제도권의 문화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간과된 것은 불교의 역할이다. 조선은 승유억불정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종교적인 면에서 불교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전통적인 민간신앙도 그 틈새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을 수 밖에 없었다. 형이상학적인 신분제도에 의해 민간신앙이 제도화 되지는 못하였으나 토속신앙으로써 불교와 조화를 이루어 서민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찬란한 불교문화도 꽃피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 儒教が濃密だったむかしの韓国では、海女は賤しいとされた。

理由は三つある。一つは身を勞することが賤しいというのである。

— 中略 —

もう一つの差別基準は、海村ということである。

— 中略 —

この点、朝鮮は、差別という点では中国ほど大らかではない。とくに李氏朝鮮における差別体制は、世界史上も冠たるものだった。科擧の試験も、両班階級の出身でなければ受験資格はなかった。(ただし武科はふつうの農民も受験できた。)

まして漁村(海村)出身者には受験資格はなかった。

— 中略 —

漁業は一般に賤業視され、陽村の男子が海村の女を嫁にもらわぬ理由は「裸になって海に入るから」であった。(泉靖一『濟州島』)

— 中略 —

儒教は、裸を厭うのである。

信じがたいほどに厭う。華とはもともと素朴な段階でいえば、衣服を着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男子はできれば冠をつけているか、せめて髪の一部をおおう巾をつけ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 中略 —

君子ハ心ヲ勞シ、小人ハ力ヲ勞ス、というのは、日本ではあまりあてはまりにくいのである。戦国期の築城のときなどは、大名みずからモッコをかついで土を運んだ。作業士気を高めるための率先垂範ということなのだが、こういうことを同時代の中国や朝鮮でやれば、人心は離れるのにちがいない。

<p.285, 4 ~ p. 289, 5>

탐라기행의 동기에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시미는 제주 해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주해녀들은 일본 공주의 피가 흐르고 있고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거친 자연과 현실에 대처하는 자연인의 모습을 가졌었기에 그의 언급대로 고대이래 일본 무사의 씩씩한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급기

야 현장 노동자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손수 팔을 걷고 노동관에 뛰어들었던 영주의 예를 들기까지 하였다.

시바의 지적대로 신분의 격차와 왜곡된 직업관에 의해 해녀가 천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여성비가 높고 어업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었던 폐쇄적인 도서지방의 상황 등은 제주도 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으로써 문화비평의 요소로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부정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① 중국의 유학이 유교로 정치이념화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념화, 형이상학화 하였으며 ② ‘선비’와 ‘과거제도’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도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으로 변질되었고 ③ ①②의 결과적 산물로 인하여 조선중기 이후에 소모적인 당파싸움, 귀천을 따지는 직업관, 고질적인 지역감정, 현실경제의 도외시에 의한 경제파탄 등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④ 한국인과 제일한 국민에 대한 불친절과 거만함 ⑤ 해녀와 무녀에 대한 차별의식 등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실학적 논리가 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구소련의 공산주의와 회교국가의 정체성을 조선유교체제의 모순과 동일하게 본 점은, 서구의 합리주의에서 발생한 정치사상으로서 선진이념인 공산주의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한 서구식 합리주의에 대한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유교질서를 비난하면서도 연장자를 존경하는 풍습에 대해서는 언급은 회피하였고, 관덕정 정자와 근대식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은 현실적인 역사소설가의 입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비문학적, 비문학적 요소가 농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시바가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만 서술하였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역사소설가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동시대에도 많은 역사소설가가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그의 소설에 문학적 픽션의 요소는 엄연히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4 긍정적 견해

(1) 日本における漢字は、組織的には、百濟からきた。

百濟は、長江の下流の呉とよばれる地方(いまの蘇州付近)や、おなじく長江流域の建業(いまの南京)あたりとつきあっていたために、漢字の音じ方、呉音だった。従って、日本の奈良期の漢字の音も、百濟音 ⇔ 呉音なのである。

(2) 韓國の上流・中流の古い民家には、奈良盆地の寺の土塀とよく似た土塀がめぐらされている。 <p.71, 9>

위의 언급을 긍정적인 견해로 분류하는 것은 다소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 이외의 것들을 정리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1)에서 시바는 일본한자음의 다양화 과정을 한일고대사에 정통한 몽골어학 전공자로서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¹⁴⁾

(2)에서는 제주의 중, 상류층의 고민가의 흙도담에서 나라시대의 원형을 연상하고 있는데 『카라노쿠니기행』 중의 수로왕릉, 경주, 부여 답사에서는 더욱 강렬한 인상을 피력하였다.¹⁵⁾

(3) 「ユツ」

という遊戯についてふれられた。この遊戯は、万葉時代の日本に入っていて、ふつうおこなわれていたらしく、歌のなかに、語呂あわせとして詠みこまれているというのである。

その後、この遊戯は日本から消えた。それが、西帰浦の波止場でおこなわれていた。万葉時代を見るようなふしぎな情景だった。

— 中略 —

金思燁博士は、『万葉集』卷十の一八七四の歌と同十二の二九八八、また同卷第六の九四八の歌の字句解釈において、このユツについての言葉遊びが入っている、とされる。じつに的確な指摘である。

— 中略 —

いっごろまで日本にあったかについては、^{さかいやすし}酒井欣はくわしく考証し、すくなくとも室町時代には児童の遊戯として存在したという。

さらに、酒井欣は、この遊戯が『万葉集』の歌の中で、言葉遊びとして使われているとするのである。 <p.163, 17 ~ p.165, 12>

14) 司馬遼太郎, 2007年, 『耽羅紀行』, 앞의 책, pp.42-46

15) 司馬遼太郎, 2008年, 『韓のくに紀行』, 앞의 책, p.89

‘누문을 빠져나오니 갑자기 천평시대(天平 : 奈良時代、聖武天皇시대의 연호, 729年 8月 5日~749年 4月 14日)의 옛날로 들어온 듯한 생각이 들었다. 좌우에 건물이 있고, 정면에 배전당이 있다. 아무리 봐도 천평시대의 건축이었다. 다만 대화시대(아마토정권이 지배했었던 울령국가성립 이전의 시대)에 남아있는 동일한 양식처럼 늘씬한 느낌이 아니고 사용된 목재 등도 아무렇게 구부러져 있어, 모든 것이 원초적이고 모든 것이 투박하여 시골의 목수가 땀을 흘려 세운 것 같은 느낌이다. 원형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렇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천오백년 전의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라면 여기 회랑 하나만 보고서도 여기가 용궁성이라고 생각했을 리 틀림없다.’

(4) 前記の遊戯のユツは、金思燁博士によれば、
「この遊戯はもと北方の夫余族が考案して…」
という。

— 中略 —

ツングース語というのは、言葉のくみたてが、朝鮮語に似ている。発音もやや似ている。日本語ともくみたてが似ていて、その点からいえば、日本語およびモンゴル語、また朝鮮語ももどもにウラル・アルタイ語族に組み入れることができる。

まことに民族間の交流とことからいえば近代は卑小で、古代は雄大だったといえなくはない。

草原に立って遠い小山^{オム}をながめているうちに、禪のことばの「父母未生已前^{おもみしょういぜん}の自己」という奇抜な表現を思い出した。父母がまだうまれていない以前の自分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形而上的表現をことさら形而下的につかいたくもなる。ひょっとすると父母未生以前に自分はこの耽羅国に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遺伝子が喚ぶような実感が、粘膜に濡れた感覚とともに湧きあがってくるのである。

<p.166, 17 ~ p.167, 14>

웃놀이가 한반도에서 유래하여 만엽집의 노래에도 남아있고 평안시대에 까지 전래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¹⁶⁾ ‘참으로 민족간의 교류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근대는 비소하고 고대는 웅대했다’ 표현에서 그의 한일고대사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탐라국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표현으로 까지 서술되고 있다.

(5) 李氏朝鮮第四世の王である世宗(一三九七 ~ 一四五〇)は、“海東の堯舜”などといわれたほどの名君で、治世の業績がおおかった。この世宗在世のあるとし、税金のわりあてについての朝議がおこなわれた。席上、

— 濟州島民に対しては租税を免じてやるほうがよいのではないか。
という意見が出た。

免税論として、三つの理由があげられた。

いわく、「山高多風災。谷深多水災。土薄多旱災。」みごとな対句である。山高クシテ風災多シ。谷深クシテ水災多シ。土壤クシテ旱災(ひでりのわざわい)多シ。

— 中略 —

ここには、李朝末期のような、空虚な朱子学的神学論争の空気はない。

— 中略 —

この点、世宗大王の朝鮮は、政治における善というものをみごとに表現しきった時代だった。も

16) 司馬遼太郎, 2007年, 『耽羅紀行』, 앞의 책, p.164, 재인용
김사엽, 六興出版, 『記紀万葉の朝鮮語』

し李氏朝鮮において、世宗大王の治下のような政治があと二百年もつづいたとしたら、宝石のような国になっていたにちがいない。

— 中略 —

その業績のなかでこんにち、なによりも印象的なのは、朝鮮語表現のために、ハングル（朝鮮文字）をつくらせたことである。もし世宗が朝鮮史に存在せず、その後もハングルというものが存在しなかったとすれば、朝鮮は漢文表記のみの国になり、朝鮮語による文学的表現をもたずにおわったのかもしれない。この「もし」は戦慄に値する。

— 中略 —

世宗の例をみてもわかるように、李氏朝鮮は、まことに政治の国だったといっている。

室町の日本はふしぎな時代だった。政治が不在のためにかえって農業生産量があがった。これに対し、世宗の朝鮮の農業生産は、かれの政治のよさによって未曾有なほどにあがった。農業戸数がふえ、耕地面積が激増した。 <pp.65 ~ 68>

(6) 一九七〇年代、時は大統領朴正熙氏が、

「新しい村（セ・マウル）運動」

というものをおこした。韓国近代史に特筆されるべき運動で、農村の近代化や農業生産力の拡大と所得の増大の上で、成果が大きかった。 <p.261, 18 ~ p. 262, 3>

世宗대왕에 대한 평가는 극찬에 가깝고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인데 공통점은, 현실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는 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가로서는 비정상적일 만큼 현실적이라는 지적은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았다는 한계를 지적당하고 있는 반면에¹⁷⁾ 그 만큼 지도자의 현실적인 역량을 중요시 했다는 실리적인 역사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언급 및 분석이 결여된 점 등은 역사소설가로서의 시각과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의 말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韓国・朝鮮は、一見、頑固で理屈っぽい人が多いような印象をうけるのに、近代以前の建物がこうも優美でしなやかであるのは、ふしぎな思いがする。

(言語と関係があるのかな?)

<p.69, 16 ~ 18>

17) 中村政則, 2009年, 岩波書店,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 pp.212-222

위의 내용은 제주도립 민속자연박물관을 방문하고서 느낀 감회인데 유사 이래 한반도의 건축은 아름답고 부드러움이 있다고 하였다.

(8) 高麗朝末期におけるこれらの現象を右のような目でみるかぎり、この民族は世界的にみて早熟である。早熟さという印象は、三別抄の乱においていっそう濃厚になってくる。 <p.83, 17>

탐라기행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삼별초항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와 조선 실학자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재평가는 이전에 이루어진 『카라노쿠니기행』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들로, 15년의 세월 동안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습득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조선후기의 동학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 가치를 일축함으로써 역사변동의 내용을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비판받고도 있다.¹⁸⁾ 이런 관점의 선봉자는 나카츠카 아키라로, 좌파적 입장에서 평생을 일본극우보수파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그 목소리는 크게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아울러 조선후기의 내부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외부에서 찾고 있는 점도 관점의 극단성을 더하여 대중적인 설득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9) 「韓国と日本の文化のちがいは、韓国には知識人がいるだけで、日本のような知的な奇人がいなかったことだ。」

이러한 것을, 十年ばかり前、韓国人の文章のなかで読んだことがある。

この場合の知的な奇人というのは、金銭にも栄達にも、さらには知的体系の構成にすらつながらない知的な営みをつづけるという人間のことである。

私はこの人は李朝と江戸期を比較しているのだとおもった。江戸期には大田蜀山人^{おおた しよくさんじん}や平賀源内^{ひらがげんない}だけではなく、秋田の殿さまで精妙な昆虫分類学者もいたし、大坂の傘職人で蘭学の研究をした人もいたし、伊予宇和島の仏壇の修繕屋だったハンパな職人が銅板張りの蒸気機関をつくったりもした。

それらは、商品経済が活性化した社会が生み出す人間の精神の一分化で、人種論的なものではない。(人種論は日本人と韓国人のあいだでは成立しない。)

— 中略 —

が、すでに多様な経済社会を展開している現在の韓国では知的奇人が多くいるだろうというの

18) 中塚明,2009年, 앞의 책, pp.50~55

が、私の腰だめとしての推測だった。

<p.105, 5 ~ p.106, 5>

(9)의 언급은 조선시대를 통하여 다양화 하지 못했던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기는 하지만,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여러 언급을 종합할 때, 문화적인 자부심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산업화와 현대화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있고 또,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日本のような幕藩体制が近代以前の社会だった国には、夫老の存在はないが、中国や韓国のように、近代以前が儒教的な中央集権の社会では、一郷一村にかならず夫老というものがいた。

夫老は、選ばれてなるものではない。むろん官吏ではない。中央集権の官吏は網を打つようにして行政をやっているが、網の目でその力が及ぶはずがなく、網の目は夫老にまかせているのである。

<p.126, 17 ~ p.127, 3>

(11) 夫老は本来無為でありながら、おおきな温度をもっているのである。ひとびとはその人のそばに居るだけで気持ちがしずまり、心が教諭しくなり、生きてゆくことに元気がわいてくる。儒教でいう徳というのは、本来そういうものであるらしい。

<p.129, 17 ~ p.130, 1>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일반 서민 생활에서 연장자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풍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노인층들이 장유유서의 전통을 나름대로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면서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유학이라는 동양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동질감이 시바에게도 부정적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¹⁹⁾

(12) 実学の系譜はちがう。

その系譜の跡付け、精密に評価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思想史(あるいは朝鮮史)がにわかに普遍性を帯びたのである。つまり、世界思想史の堂々たる一部になったといっている。

<p.209, 13 ~ 15>

19) 『탐라기행』에서 뿐 만 아니라, 『카라노쿠니기행』에서도 한국의 노인들과의 만남에서 연장자를 우선하고 연령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객관적인 서술만 나열한 장면들이 나온다.

시바는 『탐라기행』에서 유성원과 정약용,²⁰⁾ 박제가와 박지원,²¹⁾ 등의 조선실학자를 들었는데, 특히 박지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업적까지 소개하였다.

위의 (12)에서 조선의 실학사상이 ‘세계사상사의 당당한 일부가 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학사상이 시대의 큰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즉, 사상으로서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였다.

『카라노쿠니기행』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던 조선실학에 대하여 15년후인 『탐라기행』에는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상당한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카츠카 아키라는 2009년도에 발간된 그의 저서에서 시바는 조선의 실학사상과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13) ところが、原生林に入って神遊びのような気分を味わったり、村里で休息していかにも古代信仰の象徴のような老いた樹をながめたり、また海岸のそばで、滝のかたちになって溢れ落ちて
いる漢拏山の伏流水のしぶきをあびたりしているうちに、面積の広さよりも文化の深さが予想以上
にふかいことを知った。 <p.228, 16 ~ p. 229, 3>

(14) 言語と原始宗教という民族にとっての二つ生得なものに関するかぎり、シベリアのツン
グース族やモンゴル高原のモンゴル人、いわゆる満州の少数民族である固有満州人（満州ツングース）
、それに朝鮮人、日本人などは、古層としての文化を共有してい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
<p.246, 5 ~ 8>

(15) 朝鮮文化についてはそういう北方の連中の文化と一緒にしてもらいたくない、という感情
が学問的な常識とはべつに、しばしばそれを乗り越えるものとして存在するらしかった。
<p.247, 2 ~ 3>

(16) 「あなたはまだオランケ（満州ツングース）を憎んでいますか」
と洪さんにきいてみた。
即座に返答がもどってきた。
「憎むどころか、われわれの筋目だと思っていますよ」
このことばをきいて、前記の事件 (?) からわだかまっていたが一時にさがる思いがした。
同時に、韓国には単なる知性だけではなく、堂々たる民族的自信が存在することも知った。
シャーマニズムという土俗宗教の面においても、ツングースは私どもの筋目なのである。
<p.248, 11 ~ 17>

20) 司馬遼太郎, 2007年, 『耽羅紀行』 앞의 책, p.174
21) 위의 책, p. 210

시바는 제주도에서 원초적인 동질감과 유전자적 공감을 느낀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13),(14),(15),(16)에서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시바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유전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과 동일한 우랄 알타이어계의 언어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몽고계 퉁구스족의 피가 섞였다는 점 등에서 고대의 동질감을 표하였던 것이다.²²⁾

그리고 오랑캐라고 비하되기도 하는 대륙 북방계의 자손임을 당당하게 밝히는 제주사람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호가 한족(韓族)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던 것 같다. 시바가 놀랐던 것은, 조선이 그토록 비하하고 야만인 취급을 했던 일본의 왜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던 만큼, 중국만을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한반도의 역사적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독자적 생존과 문화를 이어 왔다는 실례로 다가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17) 要するに、島にはたくさんの聖所があるが、その外観は樹と石があるのみで、堂宇をもたない点では奈良時代以前の日本の神々の神域と似ている。

日本の神々は、いわば幸福であった。平安初期あたりから春日造^{かすがづくり}や流造^{なながづくり}、あるいは日光東照宮のような権現造^{ごんげんづくり}など華麗な社殿に住み給うが、しかし、信仰のあつさからいうと、濟州島の堂の神々はむしろ幸福そうである。すくなくとも、泉靖一氏の『濟州島』を読んで、その感を深くした。

<p.259, 2 ~ 7>

(18) これに対し、宗像氏は航海よりも潜水漁法を専一にしていた印象で、よくいわれるようにいまの福岡県である筑前宗像郡金ヶ崎に本拠を置いていた。かれらは主として日本海岸を進み、岩礁のある入江に“植民地”をつくってひろがっていた。

— 中略 —

しかしその能力は、濟州島の海女におよばないのである。

昭和二十年代といえば、日韓の民間交流はないにひとしかったが、能登半島あたりの漁協かなにかが、濟州島から海女をまねいて操業してもらったという話をきいたことがある。そのとき、濟州島海女の能力がぬき出てちがうこともきいた。

— 中略 —

似ていながら能力において圧倒的にちがうのは、おそらく練度と気力に差があるのかとおもわれる。

<p.280, 1 ~ p. 281, 8>

22) 시바는 한반도에는 북방 퉁구스계 혈통, 중국 한족(漢族)계 혈통, 한반도 남부지역은 일본계 혈통이 혼재한다고 하였다.

(17)에서는 제주의 자연토속신앙의 형태가 나라시대 신을 모신 신역이 당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같다는 동질감을 지적하였고, (18)에서는 제주해녀의 뛰어난 어로기술을 소개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북큐슈의 해안지역 어민들이 (해녀도 포함되었다고 사료됨) 지역의 포구마다 ‘식민지’를 경영했었다는 부분이다. 시바는 앞서서도 제주해녀의 일본교류설을 언급했었고 『탐라기행』의 동기로 『연희기』 진상품 목록의 ‘탐라전복 6근’을 들었는데, 일본해녀보다 뛰어난 어로기술과 일본과의 교류 그리고 그가 평소에 주장했던 북큐슈와 남부한반도와의 혈연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북큐슈의 어업·‘식민지’설은 고대 탐라국과도 무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19) いまの文明には、ばかげたところがある。

学校を濫立して、こどもたちをその檻に入れ、どの檻が上等で、どの檻が下等かと区別している。社会も両親もこどもたちをどんどん追いたてて等級差の檻に入れ、自他を区別づけることによって、社会意識として安堵している。身分制のない社会になると、広場恐怖症のネズミのような心理におちいって、右のような檻をつくることで(動物園ならありえないことだが)一種の身分的住み分けをやっているらしい。日本はすでにそうなってしまったが、韓国もメンタリティの似た社会だけに、それに近い状態になっているようである。

— 中略 —

ともかくこんにちの段階の産業国家が当然、重教育主義になることはかまわない。しかしその次の社会は、産業革命以後の社会を踏まえた程度では把握しがたいほど変わった社会になるにちがいない。

おそらく — これは多分に空想だが — 海女のような古代以来の技術が異常な尊敬をうけるような気がする。そのときもお海女の風俗と技術が残っていてくれればありがたいものだが。

<p.284, 2 ~ p. 285, 1>

(19)는 제주해녀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현지인의 설명을 듣고 난 뒤의 감회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근대교육이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직업이 도외시 당하는데 대하여 서구식의 근,현대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역사소설가로서 명치와 에도시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시바가 서구식 합리주의, 실리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분석, 평가할 수는 있었겠지만 정작 그의 사고방식의 근저에는 명치와 에도시대에 대한 호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시바는 보수주의자 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긍정적 견해를 정리하면 ① 고대 탐라국과 일본과의 교류 및 유대관계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②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실적인 결과론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③ 조선의 실학자를 통해 실학사상을 평가함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성은 있었으나 사상사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 ④ 삼별초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였다는 점 ⑤ 제주의 토속신앙과 해녀를 통하여 고대 일본의 원형에 대한 공감을 느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결 론

「탐라기행」은 수필형식의 기행문으로 역사탐방, 유적지 답사의 성격이 강하며, 제주도와 일본과의 신화적, 역사적 관련성이 기행과 작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1) 타지마모리가 ‘이상향의 나무인 굴나무’를 찾아 온 곳이 제주도일 것이라는 점 (2) 제주탄생신화에 일본국왕의 세 딸이 사자(使者)의 안내로 시집을 왔다는 고려사의 부분 (3) 본인 스스로 제주여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 『연희식』에 지방으로 부터 조정에 상납되는 공물(供物) 목록에 나오는 ‘탐라 전복 6근’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즉, 고대 한일간 역사와 연관된 유적지가 작품의 배경이라는 점은 「탐라기행」이 쓰여지기 15년전에 간행된 「카라노쿠니 기행」과도 흡사하다 할 수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시바의 관심지가 「카라노쿠니 기행」의 백제, 가야, 신라(일부 지역) 그리고 「탐라기행」의 제주도에 국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한양)이 시바의 작품배경이 되지 못한 것은 조선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시각 때문으로 억측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문화의 고향과도 같은 고대 한반도(시바는 이를 수차에 걸쳐 인정하였슴)에 대해서 기록에 남은 부분만으로 자기해석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탐라기행」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일본제국주의의 조선강점에 대한 잘못을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비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노쿠니 기행」에서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의 무모함과 부당성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였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군부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탐라기행」 제10장 「북쪽에서 남쪽으로(北から南へ)」에서 18행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카라노쿠니 기행」이 발간된 1972년의 한국과 「탐라기행」이 발간된 1986년의 한국은 불과 14, 5년간에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

고 이러한 변화가 시바의 한국인식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역사 소설가로서 본인의 의견이 피력되지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 개인으로서의 무력한 소감 정도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듯한 복선을 깔고 는 있지만 1986년 당시의 시바의 사회적 위치와 작가로서의 비중으로 볼 때, 또 「탐라기행」이 지금도 제주를 찾는 양식있는 일본인들의 안내서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미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극단적 이념으로서의 제국주의에 반대해 온 그의 역사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카라노쿠니 기행」에 이어 여전히 비판적이며 특히, 중기 이후의 유교문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세종대왕의 업적평가 및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의 꼬리표를 붙이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진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하며 지나치게 사리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으며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보급에 의해 노령화되는 제주해녀가 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고 보편적 근대교육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는데, 한학에 대한 동경과 자유로운 직업관, 다양한 사고와 창조성의 존중, 조선 후기의 비합리적 직업관에 대한 비판 등과 연관하여 볼 때, 서구식 합리주의의 산물인 현대의 여러가지 병폐에 대하여 에도, 명치시대 식 실리주의로의 복고적 향수를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카라노쿠니 기행」에서 드넓고 아름다운 석양의 김해평야를 바라보고는 일본같으면 고급별장지대로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술회한 부분처럼 감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시바는 사상가도 역사가도 아니며 소설가이자 작가이고 평론가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특히 일본의 작가를 평가함에 있어 보수와 진보, 친한(親韓)과 혐한(嫌韓)을 판단의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바는 일본의 전통을 더없이 사랑하는 보수이면서 실증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진보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유교적 폐해에 대해 적나라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초적 문화의 동질감이라는 친밀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바는 한국인들에게 까다로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때로는 저평가 되기도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논자는 조선후기 유학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시바의 관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조선후기를 접할 때마다 느꼈다는 그의 답답함과 분노가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일종의 깊은 애정의 발로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릴 수 없다. 아울러

민이가 말살된 시대의 암울함에 대한 시바의 지적을 되살려서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 의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적인 가능성과 접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司馬遼太郎 (2007) 街道をゆく28 『耽羅紀行』朝日新聞社, pp.9-305
司馬遼太郎 (2008) 街道をゆく2 『韓のくに紀行』朝日新聞社, p.89, p.105, p.155, p.221
松本健一 (2009) 『司馬遼太郎を読む』新潮文庫, pp.35-37
中塚明 (2009) 『司馬遼太郎の歴史観』高文研, pp.26-46, pp.186-190
中村政則 (2009) 『「坂の上の雲」と司馬史観』岩波書店, pp.212-222
志村有弘編 (2007) 『司馬遼太郎事典』勉誠出版, pp.156-157, p.212
平凡社 (2007) 『別冊太陽 司馬遼太郎 新しい日本の発見』, p.57, p.193
潮匡人 (2007) 『司馬史観と太平洋戦争』PHP新書, pp.67-68
和田宏 (2004) 『司馬遼太郎という人』文春新書, p.38
青木彰 (2004) 『司馬遼太郎と三つの戦争 戊辰・日露・太平洋』朝日選書, p.78
味酒安則・村田真理 (2002) 『新菅家御伝』太宰府天満宮文化研究所, pp.37-45
清藤鶴美 (2000) 『菅家の文華』太宰府天満宮文化研究所, pp.2-23

논문투고일 : 2011년 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1년 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1년 7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25일

〈要旨〉

「탐라기행(耽羅紀行)」으로 보는 시바 료타로의 한국인식

본고는 시바 료타로의 『탐라기행』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은 작품에 나타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① 중국의 유학이 유교로 정치이념화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념화, 형이상학화 하였으며 ② ‘선비’와 ‘과거제도’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제도로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으로 변질되었고 ③ ①, ②의 결과적 산물로 인하여 조선중기 이후에 소모적인 당파싸움. 귀천을 따지는 직업관, 고질적인 지역감정, 현실경제의 도외시에 의한 경제파탄 등이 야기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덧붙여서 ④ 한국인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불친절하고 거만하며 ⑤ 해녀와 무녀에 대한 차별의식 등도 지적하였다.

긍정적 견해는 ① 고대 탐라국과 일본과의 교류 및 유대관계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② 세종대왕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실적인 결과론으로 판단하였고 ③ 조선의 실학자를 통해 실학사상을 평가함에 있어 실질적인 한계성은 있었으나 사상사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④ 삼별초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⑤ 제주의 토속신앙과 해녀를 통하여 고대 일본의 원형에 대한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제의 조선강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점은 본서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논자는 조선유교에 대한 시바의 비판이 조선후기에 집중되었고 그 판단의 근거에는 결과론적 현실주의와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바의 조선유교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판을 여과, 수용하여 비운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YOTARO SHIBA's the recognition of KOREA on 「The journey of TAMR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vestigating which about RYOTARO SHIBA's the recognition of Korea and Korean on 『The journey of TAMRA』. The analytical method about Korea and Korean who appear in the work the expression which is centering around direct the negative outlook and positive outlook.

With the negative outlook, ① Confucianism of China with Confucianism political ideology ideation and metaphysics made go to extremes from the process which does and became. ② ‘SonBi’and ‘Kwageo service exam’above maintaining a dominative structure, deteriorated unreally from the process which is operated with one social system. ③ According to ①, ②, Chosun mid-term after that the factional fight which is exhaustive, the occupational tube which is discriminational, the area sentiment which is inveterate disease, looks away an actual economy with economic failure etc. was caused, analyzed with result. Attaches ④ The impression is unkind about a Korean and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haughty. ⑤ Discriminational etc. indicated about the woman diver and the exorcist.

With the affirmative outlook, ① SHIBA had deep sympathy about relationship of interchange and tie with the Ancient Tamra and Japan. ② About Sejong Great King and Former President Park Jung Hee the evaluation which is affirmative judged with the consequentism which is actual. ③ Evaluation the limit which is actual is but evaluated as a mapping affirmatively about the partical scientist as a matter of Korea. ④ Recognized the historical value of contention of ‘Sambyulcho’. ⑤ Indigenous belief and the woman diver of Cheju and confirmed the circle of ancient Japan. And recognizing a mistake as the feature which this work is important

is a possibility of doing about colony control of Japan.

The debater about Confucianism of Chosun in ground of the judgment the criticism to be concentrated to a Chosun periodic postscript the deep gain and loss was prerequisite about consequentism realism and historical relationship of Korea and Japan between, in order to think recognizes a criticism partially about evil of Chosun Confucianism hour.

Together like this criticism to filtrate and to accommodate with historian who is cruel in order not to be repeated, thinks that there is a necessity.

K C I